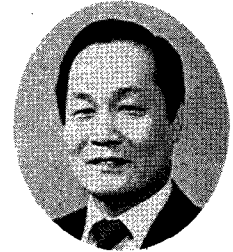


# 虛構에 찬 反原電 論理

— 무책임한 반대로 국민오도 삼가야 —



金 善 昶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副會長)

### ◇ 세계의 원전은 증가하고 있다.

3월9일자 모신문 과학사회란에 실린 「원전 신기루서 깨어나야」 제목의 칼럼을 읽고 거기서 언급된 논리의 허구성과 단점을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필자 이항규씨는 이 칼럼에서 세계의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원자력산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말하고 실례로 영국, 독일, 미국의 경우를 들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영국은 89년, 전력회사를 민영화하면서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원자력산업은 끝장이 났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재 건설중인 1기외에도 신규로 3기의 건설계획이 추진중에 있음을 왜 외면하고 있는가?

또 독일은 88년에 이미 건설중인 원전을 취소했다고 하나 88년이후 운전중인 원전을 19기에서 21기로 증가했으며 1기가 건설중이고 2기의 신규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세계의 원전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79년의 223기가 90년에는 423기로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74년이후 신규발주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미국내의 경기침

체와 전력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원자력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건설도 59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씨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원자력산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데 2차대전중 원폭피해를 입은 일본이 왜 원전건설에 그토록 열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합당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선진 7개국 정상, 原電 지지

뿐만 아니라 90년 7월 휴스턴에서 열린 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온실효과를 내는 가스의 방출을 감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각국은 환경파괴를 막는 대체에너지개발에 우선해야 하며 원자력은 에너지공급에 계속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7개국정상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씨는 에너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에너지의 효율을 높인다면 발전소를 짓지않고도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국내 사정에 너무 어두운 탓이다. 우리나라의 국민1인당 전력사용량은 연간 약 1,900kW인데 비하여 대만은 3,500kW, 일본은 4,700kW, 미국은 10,000kW에 이른다. 이로 미루어볼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화의 진전과 함께 전력수요의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례로 90년 여름에는 냉방수요의 증가로 예비전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한전은 경제성이 없어 문을 닫았던 노후 발전설비를 총가동하는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이 판국에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면 발전소를 안지어도 된다는 말이 나올수 있겠는가?

◇ 태양열, 풍력은 현실적 대안 못돼

이씨는 원자력이 경제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원전이 있었기에 중동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안정공급이 가능했으며 전기요금도 82년이후 아홉차례에 걸쳐 28.6%나 인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원자력이 발전원가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씨는 또 우리나라를 천혜의 대체에너지 자원보유국으로 보고 있는데 태양열이나 풍력 가지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 착각도 너무 심한 편이다.

선진국 정상들이 선언했듯이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여전히 크린에너지이고,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에너지源이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면서 이방면의 비전문인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궤변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국가에서의 신문투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고한 사람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나라에는 각 분야마다 전문인집단이 있는 법인데 이 분야의 비전문인이 전문가 집단의 의사에 반하는 무책임한 논설로서 국민을 오도하고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마땅히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력부족현상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은 이미 6~7년 전에 정부가 電源開發計劃을 수정하면서 이 분야에 경험이 없고 국내사정에도 어두운 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정한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실정을 모르는 학자들의 주장이 이같은 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나 제발 경솔한 언동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